

## 기고

지상훈 보성119안전센터장



##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청렴(清廉)을 말하다

역대 정부마다 반복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옛날 '분경 금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 때문에 용수철처럼 다시 원상태로 회귀를 반복했다.

분경(弁競)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을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의미로서 '분경금지법'은 이를 금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법한 사람은 곤

장을 맞고 유배를 당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법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어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오늘날 청렴에 대한 각종 시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교육, 결의대회 등 공무원 사회는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비추어 보더라도 제도가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사회로 가는 청렴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작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라는 조직이 다 함께 실천하다 보면 더욱더 단단한 뿌리를

를 내리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청렴의 기본정신인 공명정대함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청렴 실천이라는 작은 뿌리를 내려 보자.

정약용 선생이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데서 생긴다. 협명한 자는 청렴한 것이 자신의 장래에 이롭기 때문에 청렴하다"라고 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청렴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눈 넓은 들핀을 걸어갈 때 / 어지러이 걷지 말라 /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을 읽으며 지금의 우리가 만든 청렴한 대한민국이 후세의 자손들이 공명 정대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란 것을 잊지 말자.

## 社說

## ‘양파’ 소비촉진 동참해야

양파에 이어 마늘도 최근 10년 사이 최고의 작황을 보이며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종년의 역설'에 물고 있는 농민들을 돋고자 전국의 지자체와 농협 단체 등이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출을 통해 재고량을 줄이겠다는 대책도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 양파 도매가(20kg 기준)는 평균 1만6천원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면서 작년보다 38%

폭락해 1만원을 기加息로 넘기고 있다. 양파 중 크기가 큰 대파는 보통 전체 수확량의 30%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50%까지 상승하면서 증과보다도 싼값에 팔릴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

마늘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거래시장의 난지형 햇마늘 가격은 kg당 2천826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kg당 3천981원)보다 35.1%나

내렸다. 산지 마늘 수매가격도 뚝 내려갔다. 올해 전국 양파 생산량은 평년과 비교해 13% 늘어난 128만t, 마늘은 평년보다 19~21% 늘어난 36만2천 ~36만8천t으로 예상된다.

양파·마늘 농가의 시름을 덜고자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비촉진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을 통해 양파가격 하락을 막자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 등에 양파를 수출할 경우 드는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kg당 204원이던 수출 물류비 지원금을 274원으로 올렸다. 농식품부는 대만·태국 등에 설치된 신선농산물 판매 거점인 'K-프레시 존'(K-Fresh Zone)에 보내거나 베트남 대형유통업체 판촉, 도매시장 연계 기획수출 등 긴급 수출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당국은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독자투고

## 소방차 전용구역 지키기 생활화 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충북 청원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

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등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률 개정 당시 기준 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등차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신기석 / 광주광산소방서 진압팀장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정기화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다.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발하게 되는데 이때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것이 온열관련 질환(열경련, 열탈진 등)이다.

이러한 온열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적 외출을 삼가하고 라디오나 TV의 기상뉴스에 주목하고, 가족 중에 가로증인 환자가 있다면 수시로 연락해 열사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이다. 모든 주민은 반드시 숙지해 올 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에도 웃이 되길 바란다.

첫째,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한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고, 노약자, 어린이는 시원한 장소로 더위를 피한다. 외출 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고 가급적 가볍고 험한 옷을 입는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와 잦은 물

섭취,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 식사는 육류, 생선, 잡곡, 신선한 야

채 등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과 탄산·알코올·카페인 음료는 피한다. 물은 가급적 끓여서 마시고 손발을 깨끗이 한다.

셋째,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한다. 실내와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잠들기 전 일정시간 가동 후 꺼져도록 예의한다.

넷째, 만일의 정진사태에 대비한다. 정진 시 사용할 손전등, 비상식음료, 손부채 휴대용리더오 등을 준비한다. 실제 정진이 되면 한진(국번 없이 123)에 신고한 뒤, 전원차단기를 내리고 모든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빼둔다.

다섯째,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한다. 잠들기 전 심한 운동은 피하고, 사워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한다.

또한 카페인 함유음료나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드라마시청, 컴퓨터게임 등을 삼간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간단한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임영진 / 화순군 119안전센터 소방위

## 문화융성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등록번호 광수자 00021 (일간)

## 호남신문

대표 전화

(062) 229-60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대표 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1동 167-16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